Review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

失鄕 속 望鄕의 노래

〈실향〉 〈망향〉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강산에 '라구요' 中-

뉴욕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텐진 릭돌이 고향 땅의 흙을 인도 다람살라로 운반하고자 결심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효(孝)' 차원에서였다. '죽기 전에 티베트 땅을 밟아보고 싶다' 고 누누이 얘기한 그의 아버지가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은 이런 뜻을 세운 텐진 릭돌의 100일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은 효가 아니라 중국의 탄압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티베트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그깟 흙이 무어라고 티베트 내 중국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해 '밀수' 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 내 고향 흙을 옮기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텐진 릭돌은 한숨짓는다. 흙을 담은 포대자루가 험준한 계곡 위로 이어진 로프를 타고 국경을 건너듯 중국인이 아닌 티베트인으로 살고자 한 이들 역시 한숨을 내쉬며 위험한 선택을 했으리라. 그렇게 티베트 흙 20톤은 2개의 국경과 50개의 검문소를 지나 총 2000km를 달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 도착한다.

흙을 가져온 텐진 릭돌에게 달라이 라마는 "중국은 자비와 연민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티베트 독립을 위해 100여 명이 분신하고, 중국 탄압에 120만 명의 목숨이 스러졌어도 '평화' 의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난민학교 아이들이 고국에서 온 흙을 만지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있는 모습. 자식만은 티베트인으로 살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에 따라 홀로 티베트를 떠나 다람살라서 지내는 아이들도 여럿 있다.
사진제공=버디필름

가치를 놓지 않는 티베트인들의 자세가 돋보인다. 다람살라 티베트난민학교 아이들은 고국에서 온 흙을 밟으며 '자유를 향한 노래' 를 부른다. 밝지만 먹먹하다. 아름다움에 깃든 어둠이 보는 이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렇게 흙 20톤은 반나절 만에 6000여 티베트인들에게 나눠져 고향이 됐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처럼 특수한 촬영기법도, 빼어난 영상미도 없다. 게다가 불교사상을 담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티베트와 중국의 정치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아니다. 그저 중국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티베트자치구' 를 '티베트' 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의지,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이 짙게 배어있다.

영화 시사회서 관객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현실을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텐진 릭돌. 어차피 열강은 약소국의 독립에 관심이 없다.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개개인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무슨 힘이 될까 싶겠지만 상처 입은 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공감이다. 비슷한 질곡의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영화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본다. 히말라야의 거센 바람에 룽다(불교경전 · 진언을 적은 오색깃발)가 펄럭인다. 자본주의사회서 권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횡포에 주권회복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 티베트가 엿보인다. 망향(亡鄕), 아니 망향(望鄕)이다. 윤호섭 기자

젊은 아티스트가 만난 일상 속 '깨달음'

프로젝트 그룹 핑크붓다 'BUDDHAS' 展

9월 1~15일 불일미술관서

영상 · 회화 등 30여 점 전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현대 · 감각적 작품 통해 전해

한 승려가 마조 도일 선사에게 '어떤 것이 도(깨달음)인가' 를 물었다. 마조 도일은 이에 대해 "평상심이 도"라고 말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흔히 범부들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무엇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마조 도일은 깨달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상 생활에 하나 하나 몰두하는 순간을 깨달음이라고 본 것이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대표 조수연)' 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하는 'BUDDHAS' 전시회는 이 같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메시지를 담는다.

이들은 미디어, 사운드, 설치, 회화 등을 접목시킨 다양하고 고유한 작업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존재에 대한 문제는 현대미술에서 현대성이 부재한 소재로 폄하되고 있는 불교 예술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조수연 작가의 작품 'BUDDHAS' 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는 거리를 보여준다. 작가는 "매일 많은 부처를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한다.

최경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환(還)' 은 부처 실루엣을 향해가는 인간 군상들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참회하고 부처의 참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최경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환(還)'

정윤영 작가의 작품 '식물' 은 식물과 색의 무늬가 중첩되면서 여러 생각의 편린들을 남긴다. 정 작가는 "식물이 지닌 자연스러움은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에 개입하여 관계 맺고 감각하는 사이, 그것은 내 삶의 편린으로 다시 살아난다"면서 "어떤 묵직한 의미 부여 보다는 식물이 제공하는 잔잔한 울림이 곧 나라는 '존재' 의 문제로 연결됨을 알아차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핑크붓다는 "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서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린 이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일 것" 이라며 "생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이 시도한 날 것 그대로의 창작 작업은 불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핑크붓다는 2013년 젊은 아티스트들이 의기투합 하여 만든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이다. 패션 디자인부터 디자인 경영, 회화, 불교미술, 사운드 등 구성원의 전공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대표는 조수연(동국대 불교미술 박사) 작가가 맡고 있으며, 구성 작가로는 전경희, 정금률, 정윤영, 최경준, 허효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물관 교육도 이제는 맞춤형 시대

고판화博, 계층별 교육 실시… 하반기 프로그램 모집

한국 전통 판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올해에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눙화판을 활용한 전통책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수했다.

문화예술을 통한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군장병을 위한 숲속판화학교' 프로그램을 7년째 실시했다. 올해에는 800여명의 군 장병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을 중심으로 한 '목판본 삽화를 통한 전통판화학교' 와 '가족이 함께하는 숲속판화학교', '군장병 힐링캠프' 등도 고판화 박물관이 자랑하는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고판화박물관이 실시하고 있는 13년의 박물관 교육은 그동안 찾아가는 박물관교육에서, 맞춤형 박물관교육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면서 "다양한 맞춤형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군장병,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문의 및 신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장인에게 배우는 '나만의 목가구'

은평한옥博 목가구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은평구립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전통목공예 방식으로 목가구 작품을 만들어보는 '전통 목가구' 와 생활에 필요한 목공품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목가구' 2개 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전통 목가구'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에 진행된다. 총 12회 과정이며, 대상은 성인 16명이다. 교육은 사방탁자(사방이트여 있는 다층의 탁자) 또는 오동함(오동나무로 만든 보관상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4시에 열리는 '나만의 목가구'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목제품인 찻상 또는 도마, 어린이의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작해보는 실습 과정으로 이뤄진다.

소목교실 강의는 조화신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수(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교육조교)가 맡아 진행한다.

교육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ep.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02)351-8527

신성민 기자

조계종 9월 9일까지 신작찬불가 지원 공모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음악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작찬불가 공모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대중 찬불가 · 찬불가 합창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등 신작찬불가를 9월 9일까지 공모한다. 불교사상 또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 제한은 없다.

올해는 종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이 주관해 서류심사만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서 벗어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를 거쳐 선정한다. 참가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받아 음원CD 1개, 악보 5부, 사진 1매, 참가비 5만원을 구비해야 하며, 우체국 등기 또는 직접방문 접수해야 한다.

상금규모는 총 1150만원이며, 대상에는 5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10곡은 12월에 열릴 시상식 겸 신작발표 연주회를 위해 챔버 이상의 구성으로 편곡된 파일 및 악보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곡 및 미발표곡이어야 하며, 기존 문학작품을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 응모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02)3128-4866 윤호섭 기자

